

임실군, 먹거리 정책연구 활발

먹거리정책 포럼 개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활성화 방안 등 모색

임실군이 기획생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지역 내 선순환환경을 만들 수 있는 먹거리 정책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군 먹거리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실군은 지난 20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군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임실군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참여 능가 확대 및 품목의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심민 임실군수와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관기관 단체 대표, 각급학교 영양교사,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생산체계 구축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진섭 대표가 '임실군 먹거리계획 이해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건강한 먹거리 공급 보장, 기획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역 선순환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먹거리 통합 컨트롤타워인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역량 강화 방

안에 대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훈은 과장이 '임실군 기획생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영삼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정호 군의원, 강태구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백진순 영양교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고,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포럼은 군민들이 먹거리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의 연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임실군, 생후 4개월~만 6세 이하 영유아 대상

임실군이 보건 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후 4개월에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 시기는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검진 시기에 해당하면 검진 비는 전액 무료이다.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문진표 및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를 작성하고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검진 완료 후 검진 결과는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또한,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핵, B형간염, 백일해 등 18종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후 이루어진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기의 성장·발달 이상, 뇌성마비, 청각·시각 이상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매우 중요하므로 영유아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벌쏘임 예방수칙·응급처치 행동요령 홍보

순창군은 여름철 산행과 추석 전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벌쏘임 예방 수칙과 응급처치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쏘임 예방과 응

급처치 방안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동요령으로는 야외활동 시 벌집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긴 옷, 긴 바지를 입고 어두운 옷보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하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몸을 낮추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붓지 않게 하고 추후 증상이 악화 되는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특히, 말벌은 독성이 강해 주의해야 하며 알레르기 과민반응 발생 시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즉시 119 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난 20일 남원의료원 대강당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주민건강관리 시범사업 발굴을 주제로 '제1회 남원 미래의료 포럼'을 개최했다.

남원시, 미래의료 포럼 개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주민건강관리 시범사업 발굴 주제

남원시는 지난 20일 남원의료원 대강당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주민건강관리 시범사업 발굴을 주제로 '제1회 남원 미래의료 포럼'을 개최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남원시와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개최, 의료 분야 유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료 방향성을 모색했으며, 포럼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권덕철 전북대 교수,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 이종엽 교수, 한용재 보건소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최낙천 KB헬스케어,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고명진 실비아헬스, 남상우 닥터스바이오텍, 관내 의사회 임업, 병원급 관계자 및 의료인 등 약6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남원형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 개요 △남원시 건강관리 현황 △남원시민 대상 오케어 활용 방안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원격협력

△치매 인지기능평가 키오스크 실증 △디지털 청진기 시범사업 △원격진진 실증사업 등 7명의 전문가 발제로 디지털 헬스기반 주민건강관리 시범사업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전문적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의 건강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망하고, 남원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주민건강관리 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드림스타트, '나만의 책꽂이 사업' 선정

남원시드림스타트는 미래셋 박원주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기 위탁 운영하는 '2024년 나만의 책꽂이 사업'에 선정돼 대상 아동 20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도서 및 구성물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별 독서 공간을 선물하는 사업으로 원목 책꽂이와 아동의 이름이 새겨진 미니 간판, 독서플라주키트, 추천도서, 본인 희망도서를 비롯한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래 꿈나무들의 독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미래셋박원주재단'에서 4년째 진행 해오고 있다.

박원주 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가치를 접함으로써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임실군 관촌면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8월 한 달간 38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온열질환의 정의 및 종류, 응급조치 교육,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 수칙과 기초 건강 체크(혈압, 혈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관촌면은 폭염 대비 행동 요령으로 수분 섭취, 뜨거운 한낮(12시~17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가볍고 시원하게 옷 입기, 외출 전 기상 정보 확인하기 등을 안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창대 관촌면장은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 외에 독거노인 인부를 확인하여 온열질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강 관리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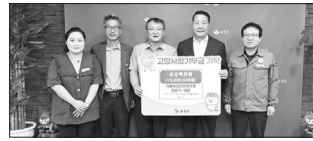
식품위생안전정보원 전문기 대표, 고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21일 식품위생안전정보원 전문기 대표가 고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문기 대표는 식품위생안전정보원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 대표는 순창군이 고흥은 아니지만,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증과 제품개발 컨설팅을 진행한 인연으로 순창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 대표는 이미 지역 사회에 대한 기부를 여러 차례 이어온 바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총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무주군에 고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전 대표는 담배품으로 받은 순창사랑상품권 150만원을 팔떡면에 2차 나눔하여 주변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전문기 대표는 "순창군과의 인연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면서, "이번 기부가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